

[공동성명]

한전 주식 늘리려는 국민연금, 말 따로 행동 따로 '탈석탄 선언'

선언은 발화 자체로 일종의 행위라 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반쪽짜리다. 실천으로 이어졌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 그런데 만약 말 따로, 행동 따로인 상황이라면? 선언은 공허해지고 기만이 된다.

국민연금이 바로 이 언행 불일치 형국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탈석탄 선언'을 하고 오히려 석탄 기업 주식을 대거 늘리겠다고 나선 것. 국민연금은 2021년 5월 탈석탄 선언을 한 후, 아직 구체적인 석탄 투자 배제 정책을 내놓지 않았다. 이런 와중에 지난 6월 9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주식 약 2,200만 주를 추가 취득하겠다는 [대량주식취득승인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한전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석탄기업이다.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전 세계 166개 기업들에 온실가스 감축을 촉구하는 기후행동 100+(Climate Action 100+)이 대상으로 하는 한국 기업 세 곳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런 이유로 세계 주요 주요 투자기관들은 명시적으로 한전을 투자에서 배제하고 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2017년 한전을 투자금지기업으로 지정했고, 네덜란드 연기금 APG는 2021년 2월, 한전 주식을 전량 매각했다.](#) 이같이 한전에 체질 개선을 요구하는 신호는 많았지만, 한전은 여전히 화석연료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 구체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 역시 부재하다. 국민연금이 한전 주식을 늘리겠다고 나서는 것은 지난해 '탈석탄 선언'에 반할 뿐 아니라 국제 동향에도 거스른다.

석탄은 기후위기의 주범일 뿐 아니라, 재무 건전성 악화 원인이기도 하다. 화석연료는 연료비 변동성이 높아 이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충격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이다. 결국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석탄 가격과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이는 고스란히 한전의 적자로 이어졌다. 2022년 1분기 한전 영업적자는 7.8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한전의 자체 신용도를 BBB-에서 BB+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하며 그 이유로 \(화석\)연료비 증가를 들기도 했다.](#) 신용등급 BB는 '장래 안전을 단언할 수 없는 투기적인' 투자 등급이다.

한전 주식을 대량으로 취득하려는 시도는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에 반할 여지 역시 있다. 국민연금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증대할 수탁자 책임을 진다. 수탁자 책임에는 재무적 요소는 물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비재무적 요소도 면밀히 분석해 합리적으로 평가할 선관주의 의무가 포함된다. 재무건전성에 비상등이 켜졌지만, 근본적인 개선책이 부재한 한전 투자금을 늘리려는 시도는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탈석탄'이라는 뚜렷한 국제 동향을 거스른다는 점에서 역시 국민연금이 선관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국민연금이 탈석탄 선언 언행일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2.07.01.

기후솔루션·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